

이렇게 들었다

국방 "방중한 마음 민백성을 불안하게"

우리의 국방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해군이 우리 영해에 침투한 북한 간첩선을 눈앞에서 놓쳤는가 하면, 미사일이 계기 이상으로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훈련중 소아울린 조명탄이 민가에 떨어져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등 여차구니 없는 사고가 잇달았다. 게다가 우리 병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 초소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한 젊은 장교의 죽음을 정확히 원인조사 밝혀내지 않고 물어버린 사실은 우리 군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군은 엄정한 규율과 원칙을 생명으로 삼는 집단이다. 군의 단 한번의 실수는 곧바로 우리 국방에 치명상이 될 수도 있다. 국방의 기틀이 흔들릴 때만이 국가의 기본틀이 제대로 유지된다. 국방과 관련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 자기를 사랑하려는 사람은 적이나 도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성문과 국경을 잘 지키듯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니 평소 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키지 않다가 난리와 도적을 만나면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하리라. <법역집아함경>

■ 3종업론(三種業輪)이란 군인들에게 전투의 기능을 잘 가르쳐 외침과 내란을 항복받아 인연들을 포유(抱育)하는 것이고, 잡짓고 농사짓는 일을 국민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住食)를 충족케 하는 것이며, 종업과 상업을 인민들에게 잘 가르쳐 여러가지 도구와 재물을 뜻대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대승대집지장심론경>

■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랠까진 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민와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거나, 계를 끝 때에는 백만생에 걸쳐 악도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

호한다...전통왕은 모든 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 왕국들은 다 그 정도(正道)에 따라서 제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불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했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

■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량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 다섯가지 공포(恐怖)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입금이 순박해서 조심성 있고 과세기준이 평등해서 '국왕에 의한 수탈의 공포'가 없는 것, 군인은 충절이 있고 현명하여 욕심내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되 '왕의 측근이 협박한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관리가 그 직분을 지키고 은혜와 관용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서 '혹사로 고통받는다'는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각자 모두 도리를 지켜 겸양하므로 나라에 왜곡된 일이 없어 '도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평화로와 교류가 잘 이루어지므로 '침략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즉 수탈 협박 혹사 도적 침략의 공포가 있으면 국민들은 불안

해 한다. <회결경>

■ 5종대사(五種大事)는 만민을 영도함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되고 장군과 사병을 잘 양육하여 지위를 주고, 본업을 잘 닦아 북적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충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이어 정적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탐욕과 즐거움을 절제하여 방일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법구성전경>

■ 만일 어떤 왕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왕의 국토안에 많은 안락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국토 안에 사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 밖의 모든 적들을 함복시켜 온 국토를 잘 보존하고 정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원하거든 중생들의 공포를 없애 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 방중한 마음으로 사업에 집착하여 오욕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이 물고기 그물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듯이 자신의 과보있음을 외면하고 교만하다가 그 업이 다하면 눈물 지으며 큰 고통받으리라. <법역집아함경>

"제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제언 ① 대원사주지 현장스님



조계종사태와 관련해 전남담양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보내왔다. 현장스님은 조계종사태의 근본원인을 '정화유시'로 대표되는 이승만정권의 불교정책과 자체 정화를 성공시키지 못한 불교 내부의 지도력 부재라고 지적하고 경건과 율장에 의거한 불교정신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2회에 나눠 현장스님의 글을 실는다. <편집자 주>

1. 조계종 폭력의 뿌리
"욕심을 버리라고 설법하는 스님들이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감투 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은 욕심을 버리고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설법했지만, 그 말을 듣고도 실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행편없는 저질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세인과 육도윤회를 믿지 않으니깐 끝없는 욕심을 부리다 자기 몸을 불태우는 아귀 세계와 독선과 무당을 낳을 새우는 아수라 세계를 저승의 심판관 열라대왕(조계사 덕왕전)을 증명으로 모시고 '삼악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한바탕 연극 무대를 열어서 전세계에 생중계를 한 것 같습니다."
분통터지는 가슴을 달래며 불연 소리로 항의하는 불자들에게 들려주는 억지 답변이지만 요즘의 종단 사태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만큼 비폭력과 관용을 으뜸가는 덕목으로 내세우는 종교는 없다. 그것은 불교의 역사와 불교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중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자기 국민들에게 설법한다.

"중국은 우리 티베트를 침략하여 사찰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욕의 소제와 인과의 교훈을 주는 스승의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종교인은 자기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치는 원수까지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나 독립이 아니라 탐·진·치 삼독의 노에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독립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폭력과 관용의 불교 정신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심어가는 달라이 라마는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4억원 가까운 상금을 아

프리카의 가아 난민을 위해 보내주었다.

"티베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티베트를 위해 쓰지 않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물론 우리 티베트가 난한 사람이 많지만 굶어 죽는 사람

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상금은 마땅히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과 실천행에서 세계 평화의 비전과 행복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불교단은 불교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독선과 폭력, 끝없는 탐욕의 모습을 연례 행사처럼 국민들 가슴에 심어 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불자들은 불교 조계

종의 끝없는 분쟁을 '불교 평화의 업보'라고 말한다.

2. 기독교의 선교전략 불교정화
조선 5백년 동안 정책적으로 천대받던 불교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일본화되었다. 일본화되었다는 것은 독선 비구의 전통이 끊어지고 처자식을 거느린 대처승이 사찰주지를 독점했다는 뜻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고 31본산 제도를 만들어 본산 주지는 총독의 감독을 받게 하였다. 또 결혼하지 않으면 주지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런 모습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무슨 속셈인지 '쇄색승(대처승)은 중이 아니니 절에서

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리고 몇몇 급진적인 비구승들은 공권력의 힘을 믿고 불교정화는 명분으로 '말도 안되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지겨운 절쟁기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의 민중들은 "우리도 무장을 하고 폭력을 써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간디를 선택했지만 간디는 반대하였다. "물론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국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키운 폭력은 결국 자기 자신과 우리 국민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간디의 표현대로 불교정화(?)를 이룩한 조계종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자신을 망치고 있다. 중생 제도의 불교가 중생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불교 정화에 불을 당긴 이승만 정권의 담화문은 어떤 속셈에 써 나왔을까? 큰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자유당의 영구집권 음모와 둘째는, 기독교의 선교전략이 그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의 선교정책은 한국에서 단군 숭배와 단기를 절제하고 설법을 없애고 우상숭배 집단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남한은 미군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미군정은 인사등용 원칙에서 미국 유학 경력과 기독교인들을 중시하였는데, 이승만 정권은 그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내각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다. 그의 내각에서 상공부장관과 제헌의원을 지낸 임영신은 '한국 불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하는 길'이라는 주제 논문으로 1931년 9월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얻은 사람이다. 그녀는 대한 교육연합회 회장을 세차례 수행하면서 한국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계종 분종 '대통령 유시'서 비롯 비폭력은 불교의 최고 덕목

조계종 분종 '대통령 유시'서 비롯 비폭력은 불교의 최고 덕목

회를 소집하게 된다. 그리고 몇몇 급진적인 비구승들은 공권력의 힘을 믿고 불교정화는 명분으로 '말도 안되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지겨운 절쟁기 싸움을 일으킨 것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의 민중들은 "우리도 무장을 하고 폭력을 써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간디를 선택했지만 간디는 반대하였다. "물론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국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키운 폭력은 결국 자기 자신과 우리 국민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간디의 표현대로 불교정화(?)를 이룩한 조계종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자신을 망치고 있다. 중생 제도의 불교가 중생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불교 정화에 불을 당긴 이승만 정권의 담화문은 어떤 속셈에 써 나왔을까? 큰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자유당의 영구집권 음모와 둘째는, 기독교의 선교전략이 그것이다. 그 당시 기독교의 선교정책은 한국에서 단군 숭배와 단기를 절제하고 설법을 없애고 우상숭배 집단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남한은 미군정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미군정은 인사등용 원칙에서 미국 유학 경력과 기독교인들을 중시하였는데, 이승만 정권은 그 방식을 그대로 자신의 내각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다. 그의 내각에서 상공부장관과 제헌의원을 지낸 임영신은 '한국 불교도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하는 길'이라는 주제 논문으로 1931년 9월 미국 남가주대학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얻은 사람이다. 그녀는 대한 교육연합회 회장을 세차례 수행하면서 한국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계종사태 독자 소리

총무원 기능 축소해야

어느 종교학자는 일련의 조계종사태로 불교의 교세는 적어도 10년 이상 후퇴했다고 논평하면서 불교의 종교적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꺼번에 수백만의 신자들을 추종업처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없을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고 있는 상당수 스님들을 파렴치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총무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총무원장의 직위와 권한을 분사 수단급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총무원, 총무원장이 교단을 수호하기는커녕 이로 인해 교단이 망치는 꼴이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둘째, 폭력을 휘두르거나 종단화합에 상대적 영향을 끼친 승려들을 종단으로부터 내쫓아야 한다. 파와합승은 비라이죄로서 엄히 다스려 일벌백계해야 한다.

셋째, 새로 들어오는 행자들을 한곳에 집합시켜 6년 이상 교육을 시키면서 문중 위주의 무질서한 기성 종단에 몰리지 않게 해야 한다. 정신이 바로 바른 후배들이 잘못된 선배들을 경책할 날이 빨리 와야 한다.

수백억의 시춧돈이 선거와 총무원 유지에 쓰여지다니 본분이 터진다. 이제 스님들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본사들이 제각각 힘을 모아 도시마다 포교당을 짓고 복지원을 건립하는 건설적인 곳에 삼보 정재가 쓰여져야 한다.

후학(스님, 영남불교대학장)

불교 아기는 이 누구인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불교신도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조계종사태를 인터넷과 이곳 신문을 통해서 접했다.

종단의 갈등을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했으면 한다. 종단의 처부를 드러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명서, 승려대회, 규탄대회, 사부대중간의 서로 힐끔들음 등 이러한 일들은 안했으면 한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출세 간법이다. 세간의 법을 동원해서 해결하지 마시고, 부처님법을 의지해서 모든것을 해결했으면 한다.

불교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정부도 언론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제자인 우리 사부대중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끌어들이지 말고, 서로 힐끔들 말고 불교 내부에서 조용히 빨리 해결했으면 한다. 박원희(아르헨티나 고려사 신도)

사태 냉정히 바라보자

육조 혜능대사의 화두가 생각난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한 무리는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다른 무리는 바람이 움직인다고 한다. 이때 혜능대사는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했다. 작금의 조계종 사태를 두고 서로 옳다, 그르다 하고 신자들도 바람 따라 흔들린다. 그러다보니 아이싸움이 어른싸움 되고, 동네싸움 되듯이 싸움이 점점 커진다. 불교도들이시여, 우리 무관심하지, 차디찬 얼음처럼 냉정하자. 일관(하이델)

언어폭력 위험수위 넘어

무엇 때문에 종간의 나팔수 노릇을 저토록 열심히 할까? 신문광고, 유인물, 통신 할 것 없이 총력전이다. 보이하니 종단화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종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억지를 부리거나 말을 바꾸는 건 보통이고,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이 위험수위를 넘은 지 이미 오래다. 종권이 그렇게 좋은가? 김석철(회정)(하이델)

◆ 대중공사 ◆

본란은 98년 11월 분열된 조계종의 모습으로 인해 실추된 한국불교의 위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정법 수호의 발판으로 삼고자 현대불교 신문에서 마련한 의견 광고지면입니다.

▶ 불교발전 위한 의견 광고접수

TEL 02)737-8881
732-1522
FAX 02)737-0697

사부대중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일러 대중이라 함인데, 어찌 비구들만의 싸움으로 대중의 화합을 해치는가.

-지정-

집안단속 하옵소서

다 아는 서양철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가 불교를 이기려고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했는데, 스님들이 신봉(신통)을 부려서 계란이 철피가 되고 바위가 두부로 변해가니 부처님 응신하셔서 집안단속 하옵소서

-선호-

알립니다.

우리나라 스님들, 산중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는 세간에 나오지 마십시오.

-조민선-

도?돈?

'도'와 '돈'이 너무 가까운 한국불교.

-구법-

불교가 흥할려면

불교가 흥할려면 돈오돈수, 돈오점수 논쟁이 흥해야되고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흥해야되고,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흥해야되고 나와 자연과 이웃은 하나운동이 흥해야되며, 돌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스님이 많아야 된다.

-유재욱-

본분사

존경하는 스님, 하루빨리 본분사로 돌아가십시오.

-본분사-

가슴이 쿵하네요

불교에는 조계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조계종이 잘못하면 다른 종단으로 신도가 몰려야 할텐데 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지 가슴이 쿵하네요 정말로

-심밀-

그냥 놓고 있어요

부처님말씀이 담긴 책, 음반이 하나도 나가질 않아 그냥 놓고 있어요. 누가 스님좀 말려주세요

-윤상수-

문제의 핵심

'바람' 하나로는 도저히 꾸릴 수 없는 스님의 재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윤이학-

나는 잘못했는데

양쪽이 모두 상대방 스님들을 악의 무리, 폭력 집단 이라고 하네요 나는 잘못했는데 스님들 중에 악의 무리, 폭력 집단이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시는 건지

-무량화-

스님 용서하세요

저는 오늘 친구들이 스님보고 마귀라고 할 때 아무말도 못하고 도망왔어요. 이모가 스님 나쁘다며 교회가지고 할 때도 그냥 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스님들 싸우지말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스님 용서하세요

-이창하-

보고싶지 않은 모습

'하화중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경에게 끌려가는 모습만은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희-

스님고시

문)다음중 구세군 자신 남비는 온정이 넘치는데 불전함이 텅빈 까닭이 아닌 것은?

1) 불전함 불태워 버릴까봐
2) 남을 봐야 뽕을 딸텐데 남편이 못가게해요
3) 스님은 전투중
4) 요즘은 구세군 자신남비가 진짜 불전함이니까
5) 스님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

알아야 될텐데

싸우는 스님보다 공부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덕없는 스님보다 덕많은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불우이웃을 멸시하는 스님보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말로만 출가한 스님보다 마음으로 출가한 스님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그리고 이번에 동원된 불자보다 동원되지 않은 불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될텐데

-성학-

긴급상항

원로 큰스님들께서 해결해 주셔야 겠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해덕-